



데뷔 25년 '대세 째돌이' 김생민 '슈퍼그웨잇'을 맞보다



연예가중계 등 20년 넘은 출연작 제치고 '영수증' 대표작 등극 시청자 영수증 통쾌한 분석에 만명 이상 신침...광고도 쇄도

그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알뜰살뜰하게 살 뿐인 데 어느 날 '대세'가 됐다.

당사자의 유행어를 빌리자면 25년 만에 '슈퍼 그웨잇'(Super Great)을 맞보고 있는 개그맨 김생민 얘기다.

옛날 같으면 "안 사면 100% 할인"이라는 그의 말에 지저리 공생이라고 욕했겠지만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에 최근 그는 소비자민들의 '위너비'로 등극했다.

◇ "제 영수증도 좀 봐주세요"…지상파 진출에 광고도 붓물

데뷔 후 25년간 KBS 2TV '연예가중계' 21년, MBC TV '출발 비디오여행' 20년, SBS TV '동물농장' 17년 등 지상파 3사의 장수 프로그램에 고정출연 중인 김생민이지만 대표적인 2017년 '김생민의 영수증'이 됐다.

심지어 이 프로그램은 원래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이었다. 그것도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의 파일럿 코너로 시작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시청자의 영수증을 보며 소비 패턴을 분석해 '스투피'(stupid) 또는 '그웨잇'(great)을 통쾌하게 날려주는 그의 매력에 무려 1만 명 이상의 구독자가 저마다 영수증을 김생민에게 들이밀었다.

그리고 지상파 입성에도 성공했다.

KBS 2TV는 지난 8월부터 8부작으로 매주 토요일 밤 10시 45분부터 15분씩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평

균 시청률(닐슨코리아)은 2%대에 머물렀지만 화제성만큼은 폭발적이었고, KBS는 추석 연휴 2회 연장 방송을 결정했다. 정규 편성에 대해서도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안 사면 100% 할인", "지금 저축하지 않으면 나중에 하기 싫은 일을 해야 한다", "웃은 기본이 22년이다" 등 촌철살인에 웃음을 결들인 그의 말들은 '어록'으로 확산 중이다.

덕분에 그는 최근 MBC TV '라디오스타', tvN 'SNL코리아' 등 예능가에서 맹활약하며 '제1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물론 본업이 개그맨인 그에게 "재밌다"는 반응보다 "응원한다"는 댓글이 더 많이 달리는 것은 김생민이 이 인기를 반짝 특수가 아닌 장기 호황으로 끌고 가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

광고주들도 그의 성실한 이미지에 잇따라 러브콜을 보낸다. 대중에 알려진 것만 해도 화장품 브랜드 '랩노', KT 모바일 서비스 '미디어팩', 소셜커머스 '위메프', 케이뱅크 등 여러 건이다.

방송가 관계자는 "알려지지 않은 광고들도 밀려들어 본인도 못 셀 정도로 하더라"고 전했다.

◇ 자연인 김생민은 "명칭한 소비 안할 뿐 쓸 때는 써"

카메라 밖의 김생민도 정말 심각한 '째돌이'일까. 반은 맞고, 반은 틀렸다는 게 지인들의 반응이다.

연예계 '통장 요정'으로 소문난 김생민은 첫 월급의 28만원 중 20만원 이상을 저금하며 데뷔 17년 만

에 10억원 이상을 모은 것으로 유명하다. 일단은 '째돌이'가 맞는 셈이다.

하지만 그는 국내 고급 아파트를 대표하는 강남의 타워팰리스에 살고, 벤츠 승용차를 몰기도 한다. 그가 타워팰리스에 입주하게 된 배경은 자녀 교육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아껴 모은 것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화끈하게 쓰는 셈이다.

"커피는 선배가 사줄 때 먹는 것"이라고 강조하는 등 웬만해서는 돈을 안 쓰는 모습이 부각된 것도 방송의 재미를 위해 더해진 부분이 있다고 지인들은 말한다.

'김생민의 영수증'을 제작한 몬스터유니온의 서수민 예능부본 이사는 9일 "김생민은 '명칭한 소비'를 하지 않을 뿐이지 쓸 때는 확실하게 쓰더라"며 "단지 '오해 내기 얼마를 받았고, 지출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었나'를 스스로 끊임없이 되새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절약의 전제는 성실이기도 하다. 김생민의 성실함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김생민 측 관계자는 "방송에서는 그의 성실함이 절반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다"며 "일상에서도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 밤늦게까지 흥청망청 노는 것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자기 관리도 잘한다"고 말했다.

서수민 이사는 "김생민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다"며 "누군가 한 말 전에 조건을 요구한 것까지 기억하며 '그 일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볼 정도로 타인에게도 성실하다. '김생민의 영수증'은 그런 김생민의 성격과 딱 맞아떨어진 프로그램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역주행 흥행 '범죄도시' 박스오피스 1위

누적 관객 180만명... '남한산성' '킹스맨' 뒤이어

영화 '범죄도시'가 '남한산성'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역주행 흥행'에 성공했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는 전날 42만5344명을 불러모으며 1위에 올랐다.

'범죄도시'는 지난 3일 개봉 당시 3위로 출발했으나, 6일 '킹스맨 : 골든서클'을 제치고 2위에 오른 뒤 마침내 정상을 차지했다.

순제작비 50억원이 투입된 이 영화는 누적 관객수 180만6838명을 기록, 이날 중 손익분기점(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범죄도시'는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가 이끄는 강력단 형사들이 중국에서 건너온 극악무도한 폭력조직 장천(윤계상) 일당을 쫓는 내용의 범죄 액션이다. 2004년 실제 있었던 조폭소탕작전을 바탕으로 했다. 이 작품은 올해 추석 극장가에서 경쟁작에 비해 주연배우나 감독의 인지도가 밀린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매력적인 캐릭터와 군더더기 없는 빠른 전개로 호응을 얻으며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청소년관람 불가 등급급 폭력의 수위는 높은 편이지만, 남다른 체구를 자랑하는 주인공 마동석이 주먹 한 방으로 평화를 지키는 '액션 히어로'로 등장해 통쾌함을 선사한다. 이 영화로 데뷔한 강윤성 감독이 친구인 마동석과 손잡고 '마동석 맞춤형 캐릭터'를 개발한 덕분이다.

연휴 초반 흥행몰이에 성공했던 '남한산성'은 연휴 막판에 다소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전날 36만5천584명을 불러모으며 2위로 밀렸다. 누적 관객 수는 299만7천728명이다. '남한산성'의 순제작비 150억원으로, 손익분기점은 약 500만 명이다.

절제된 연출과 한 폭의 동양화 같은 영상미, 김윤석·이병헌 등 배우들의 호연, 시대를 건너뛴 묵직한 메시지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지만, '다소 지루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킹스맨 : 골든서클'은 전날 20만3171명을 추가하며 총관객 수를 440만 명으로 늘렸다.

'아이 캔 스피크'는 12만6804명을 불러모아 4위를 지켰다. 지금까지 누적 관객은 286만9111명이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1대 100 (재)	50 20세기 소년소녀(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장영실 (재) 50 감성툰 고맙습니다 2 (재)	50 마녀의 법정(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산 (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도쿄콘서트 화통(재)
1	00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정 2주년 특별생방송 만남의 강은 흐른다	05 특선다큐 리스타인의 요리 기행 (아이슬란드)	10 TV속의 TV	55 닥터 365
2	20 미래기획 2030 (코리아, 생명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다)(재)	00 생활의 발견 (재) 50 차등공부책상 위기 2	10 헬로키즈 동물교실	00 뉴스브리핑
3	00 추석특집 2부작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재)	05 수빈스토리 2 35 하하랜드 스페셜 55 별버머리(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 스페셜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탐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추석특집 생존의 법칙(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20세기 소년소녀(재)	00 SBS 오뉴스 55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오늘 저녁	00 영재발굴단
7	00 KBS 뉴스 7 35 최고의 요리대결 셰프 대 과학자	50 내 남자의 비밀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1대 100	3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55 별버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 9 40 KBS 활짝 다큐멘터리 (남자여 늙은 남자여)(재)			
10	35 KBS 뉴스라인	00 마녀의 법정	00 하하랜드 스페셜 20 MBC스포츠 KEB하나은행 초청 축구 국가대표팀 친선경기 (대한민국 : 모로코)	00 사랑의 온도
11	05 UHD 특집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55 해외컬적드라마 언제나 해피엔딩	10 철부지 브로망스-윙피클럽		10 볼타는 청춘1~2부
12	50 생활의 발견	35 세상의 모든 다큐 (재)	30 출발! 비디오 여행 스페셜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왕초보 영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15:00 우주탐험가 챗	19:30 EBS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란티스	09:40 정수의 비밀(재)	15:15 꼬마키사 마이코	19:55 극한직업
(한국에 없는 부자들 찾아서 리먼왕, 무너진 내일을 일으키다)	10:30 한국기행(재)	15:30 오드뎬, 이상한 아이들	20:40 다큐오늘
06:0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5:45 부릉! 부릉! 부릉!부릉!	(열차, 백성의 바다에 스미다)
06:20 세계테마기행(재)	(아보카도 명란발과 구운 사과샐러드)	16:00 얼마 더 기다리	20:50 세계테마기행
07: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6:15 두다다공	(남만에 대하여 뽀키코 2부 거리에 흐르는 선율)
07:30 로이와 함께 하는 소망안전 이야기	12:00 EBS 정오 뉴스	16:30 방귀대장 홍봉이(재)	21:30 한국기행
07:45 출동! 슈퍼웬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큐	16:45 덩동쟁 유치원1~2(재)	(소울기행 2부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갱길을)
08:00 덩동쟁 유치원1~2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7:15 로이와 함께 하는 소망안전 이야기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갱길을)
08:30 플라워링 하트	12:45 메디컬 다큐-7요일(재)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21:50 EBS 다큐프라임
08:45 방귀대장 홍봉이	13:40 성년 롤리기(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너스나니~4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고갱길을)
09:00 몬카트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00 몬카트	23:35 메디컬 다큐-7요일
09:15 스피 루비	-마루의 어드벤처	19:15 정글에서 살아남기	24:25 세상의 모든 범죄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10일(음 8월 21일 庚午)

子	48년생 용기를 갖고 임해야 한다. 60년생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갖거나 다른 제의가 들어올 수 있다. 72년생 뿌리 깊은 업보가 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기어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84년생 기본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7, 19	午	42년생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형세는 마친 가지이다. 54년생 말 못할 속사정이 있어서 답답할 뿐이다. 66년생 실속없는 것과 관련된다면 곤란해진다. 78년생 마지막에 안타를 치는 이치이다. 90년생 합의점에 이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3, 73
丑	49년생 우월보다는 기호를 따르는 입장이 되리라. 61년생 눈이 어두워진 이치로다. 73년생 개개인의 미진한 힘이라 할지라도 합쳐진다면 탄력을 받게 될것이니 협업하라. 85년생 파격적인 변화가 올 수도 있는 조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56, 46	未	43년생 임기응변이 절실한 날이다. 55년생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해결된다. 67년생 커다란 재앙의 불씨가 보인다. 79년생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버리는 것이 적절하다. 91년생 전환되면서 상당한 수익을 부른다. 행운의 숫자 : 44, 16
寅	50년생 바꾸려 하지 말고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최상책이다. 62년생 팔이 상하 대조해 볼 필요가 있다. 74년생 사정과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이가 있느니라. 86년생 반복되는 법이니 항상 잊지 아니하고 머리에 새겨두어라. 행운의 숫자 : 97, 52	申	44년생 특수한 조처에 따르지 않으면 험난해 질 것이다. 56년생 상하 보완해 준다면 더 할 나위 없이 좋겠다. 68년생 집착하지 말고 가만히 놓아두는 것이 최상책이다. 80년생 확신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28, 60
卯	51년생 한 번만으로는 불안전하므로 여러 번 신경 써야 하는 수고로움이 보인다. 63년생 자기희생을 아끼지 말아야 희망찬 미래를 연다. 75년생 본인의 뜻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87년생 포장을 잘 한다면 가치를 높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3, 63	酉	45년생 한쪽으로 치우쳐 있으니 과단성 있게 바로 잡아야겠다. 57년생 혼신의 힘으로 매진해야 겨우 정취할 수 있겠다. 69년생 그 어떠한 것보다도 실리를 추구해야 할 때다. 81년생 귀결점은 동일할 것이니 마음 쓸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97, 45
辰	52년생 제한을 받게 되어 상당히 갑갑할 수도 있느니라. 64년생 추진하는 강도에 따라 성패가 판가름나게 되어 있다. 76년생 소중히 여겨 왔던 것이 빛을 보게 된다. 88년생 깊이 간직하지 않은 다면 얻어질 수밖에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12, 56	戌	46년생 세밀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신경 써야 할 때가 되었다. 58년생 일시적 판국이니 부담감 갖지 않아도 된다. 70년생 얼굴에 함박웃음이 피고 너털웃음이 절로 나는 경사가 보인다. 82년생 일처하지는 않겠지만 근사치에 이르리라. 행운의 숫자 : 76, 66
巳	53년생 막연하다면 실망감만 안겨 줄 뿐이다. 65년생 은원을 차치하고 보다 큰 행복으로 임해야 할 시점과 외 있다. 77년생 진력한 만큼 비례해서 이루어진다. 89년생 의욕만 앞서서 집착하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69, 05	亥	47년생 상스러운 기운이 비취고 있다. 59년생 내용이니 관계가 부실하다면 수포로 돌아갈 수도 있다. 71년생 가지관이 흔들릴 정도의 강한 자극이 보인다. 83년생 자금이 이르러서야 비로소 선유하는 근원을 알게 되리라. 행운의 숫자 : 74, 84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형" ☎010-9790-8237